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

2022. 01. 20 목요일

오전 10:00-12:00 | CTS아트홀 노량진로 100, B2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목차

	개식사 변창배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본부장
06	개회사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08	축사 이 철 CTS공동대표이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0	축사 류영모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통합 총회장
12	축사 배광식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합동 총회장
14	축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CTS기독교TV를 섬기는 감경철 회장입니다.

작년 7월 하나님의 은혜로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아동 돌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염려하고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출생 문제는 결국 희망과 행복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전문가를 찾듯이
희망과 행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전문가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보육과 돌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모두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행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중한 다음세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이 교회가 다음세대를
돌보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여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CTS기독교TV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재 감 경 철 회장
CTS기독교TV

축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총재로 섬기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고 있고, 빛의 속도로 앞서 나가는 첨단 기술 속에서 정말 숨 가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곧 감당 못할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작년 7월 CTS다음세대 운동본부가 출범한 이후 약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섬기고 또 젊은 세대를 섬겨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출생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이로 인해 불거진 보육 공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보육과 돌봄의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출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들이 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교회가 새롭게 쓰임 받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 보육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학부모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에게 뜻깊고 소중한 논의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총재 이 철 감독회장
CTS공동대표이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 류영모 목사입니다.

오늘 열리는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그리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방청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출생률 0.98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을 하회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8년이나 더 빨리 사망자 수(31만)가 출생자수(27만)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줄어들어 약 3700만 명이 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65세 노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개개인과 지역을 넘어서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는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인 ‘다음세대 돌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돌봄과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부모들에게 이 사회의 현실은 너무나 냉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퍼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부모 세대가 아이를 낳는 기쁨,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그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다음세대 돌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동 돌봄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 특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큰 뜻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재 **류영모** 총회장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통합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의 한 사람인 배광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의 개최를 알리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심포지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신 내빈과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다음세대 행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한 이래로 약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세상을 향해 그 목소리를 내는 아주 설레면서도 긴장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동역자 분들을 뵈니 큰 용기가 샘솟는 걸 느낍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두 사람 부모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돕고 이웃들이 도와야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이웃처럼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도 없거나 많이 부족하기에 부모님들께서도 출산을 꺼리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생각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헌신하여 보육과 돌봄의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면 세상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출생이라는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은 실제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우리는 현재 돌봄 기관의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저출생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이 시대 돌봄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하여 대선의 후보자님들과 국회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디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재 배 광 식 총회장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합동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철 감독회장님, 류영모 총회장님, 배광식 총회장님과 감경철 회장님 네 분의 총재님을 비롯하여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결혼과 출산 지연이 나타나 2025년에는 0.74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작년 7월 CTS기독교TV의 주도로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이자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으로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긴급한 사안 중 하나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 시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교회에 의한 '다음 세대 돌봄 정책'입니다.



지금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돌봄과 양육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전 사회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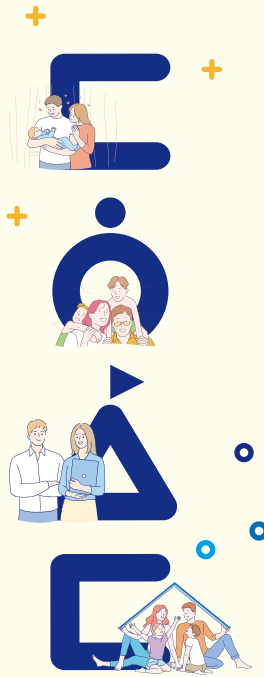
교회는 많은 사회적 자원이 있습니다. 시설과 공간,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과, 돌봄,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건강한 국가 공동체 발전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이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교회와 CTS 다음세대운동본부가 마련한 논의의 장입니다. 긴 시간 곳곳의 이웃을 섬기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탱해온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교회가 나선다면 저출생과 돌봄 부담을 해결할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큰 성과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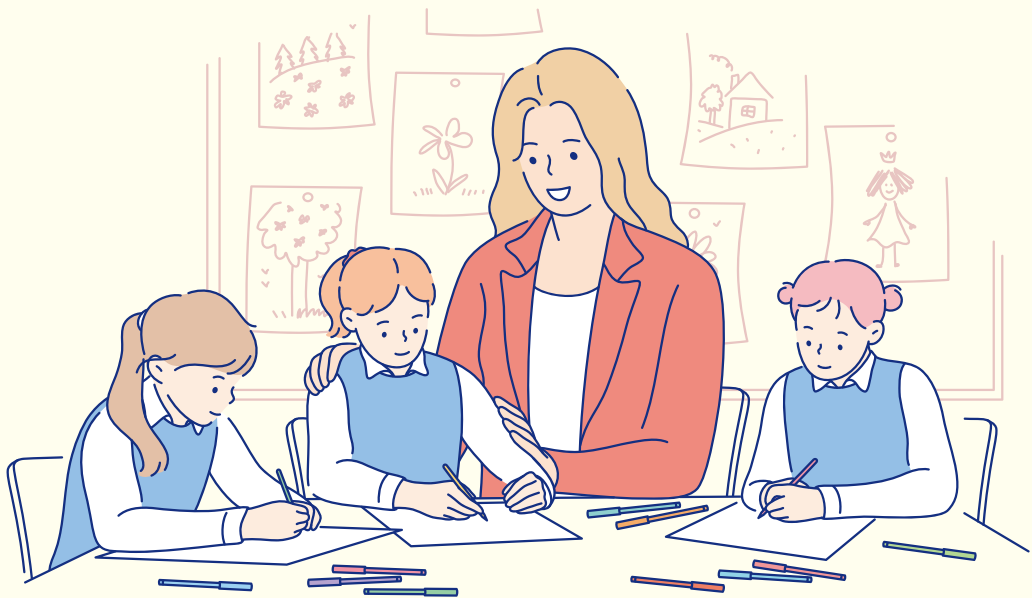
다시 한번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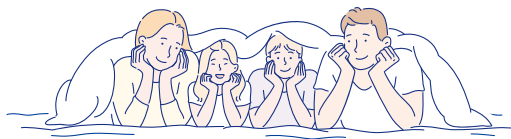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다음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가슴뛰는 세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개회	개식사 변창배 본부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개회사 감경철 회장 (CTS기독교TV)
	축사 김민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심포지엄	좌장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제발표 정익중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토론 임원선 교수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주희 목사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이사)
	송민경 대표 (아이돌봄엄마모임)
	질의응답
	마무리 및 폐회

01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

정 익 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주제발표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 익 중 교수



목차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

1. 아동돌봄의 위기
 2. 기존 아동돌봄 서비스의 한계
 3. 아동돌봄의 추진과제
 4.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
-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

아동돌봄의 위기

아동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재난 재해의 발생 등의
 요인들은 가족의 아동 돌봄 기능을 약화시켰음

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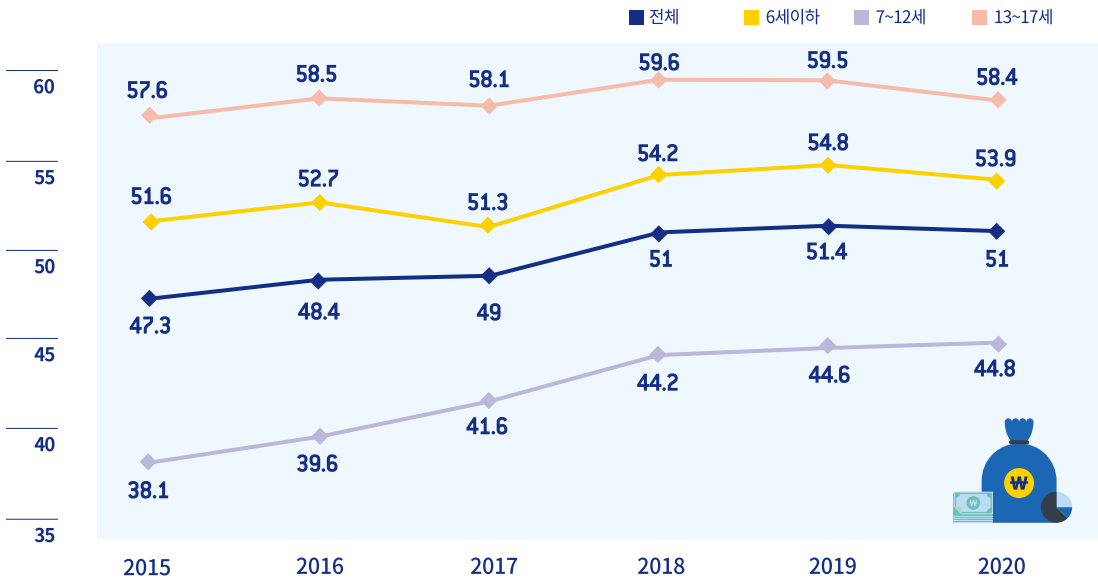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전체	4,701	2,222	47.3	4,665	2,258	48.4	4,537	2,207	49
6세 이하	2,084	794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7~12세	1,315	678	51.6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7세	1,303	750	57.6	1,267	741	58.5	1,190	691	58.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 중
전체	4,407	2,248	51.0	4,366	2,246	51.4	4,236	2,164	51
6세 이하	1,994	882	44.2	1,932	861	44.6	1,817	813	44.8
7~12세	1,318	715	54.2	1,381	758	54.8	1,375	741	83.9
13~17세	1,095	652	59.6	1,054	627	59.5	1,044	609	58.4

*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의 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단위: 천가구, %, 명)

출처 : e 나라지표(2021). 가구원수

연도	가구수 (천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1970	5,576	-	9.7	13.3	15.5	17.7	43.8	5.2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8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2018	19,979	29.3	27.3	21.0	17.0	4.3	1.2	2.4
2019	20,343	30.2	27.8	20.7	16.2	3.9	1.0	2.4
2020	20,927	31.7	28.0	20.1	15.6	3.6	0.9	2.3

아동 돌봄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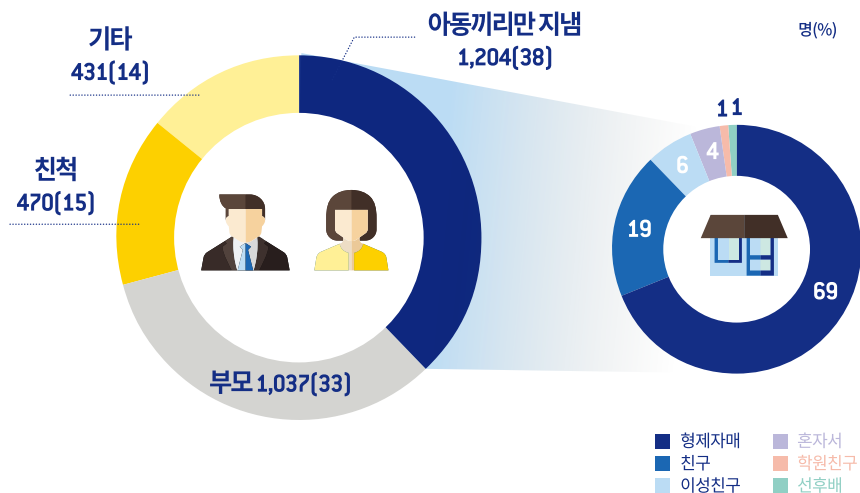
진단 01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응하는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

아동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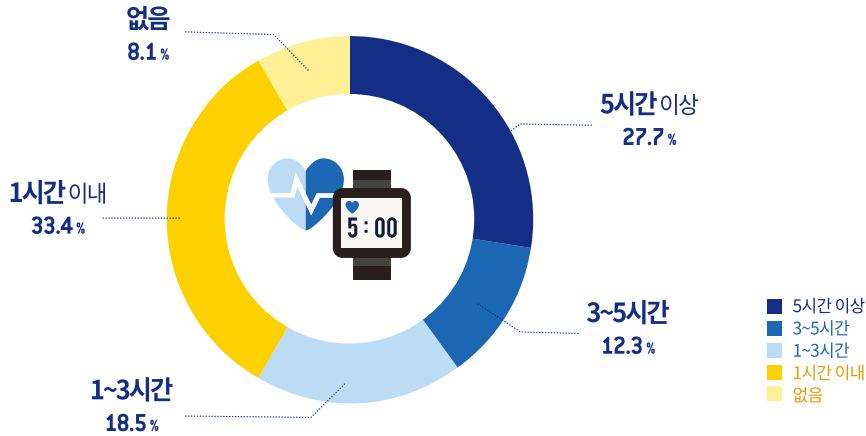


아동 혼자 집에서 보낸 시간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보도자료

60

분



1. 아동 돌봄의 위기

진단 02

■ 인구 절벽 위기

-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감소하였음.
-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에는 총 인구가 처음 감소하여 210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8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은 출산장려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함.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

- 아동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

2.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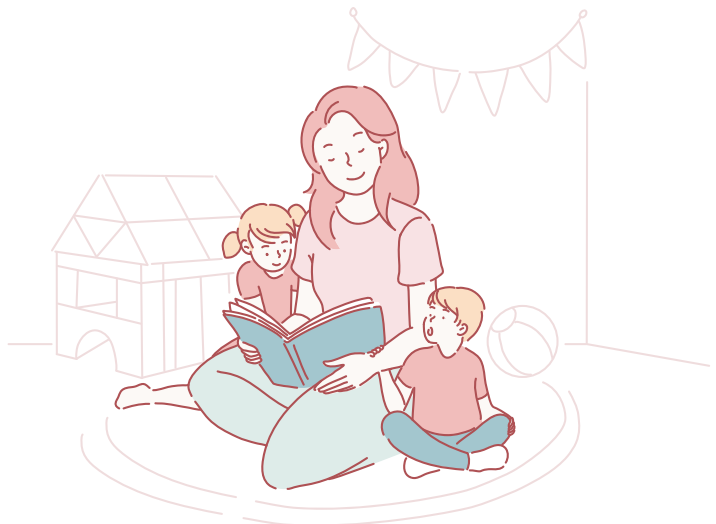
■ 아동 돌봄 연령별 서비스 불균형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아동 돌봄 연령별 서비스의 불균형, 서비스 주체의 다양성 및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발생
- 아동수요를 배제한 아동 돌봄 서비스체계 운영,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 초래

1

연령대별(미취학, 초등학교 아동, 중고등학교 아동)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 아동 돌봄 서비스 중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 3~5세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
- 반면, 6~12세의 초등학교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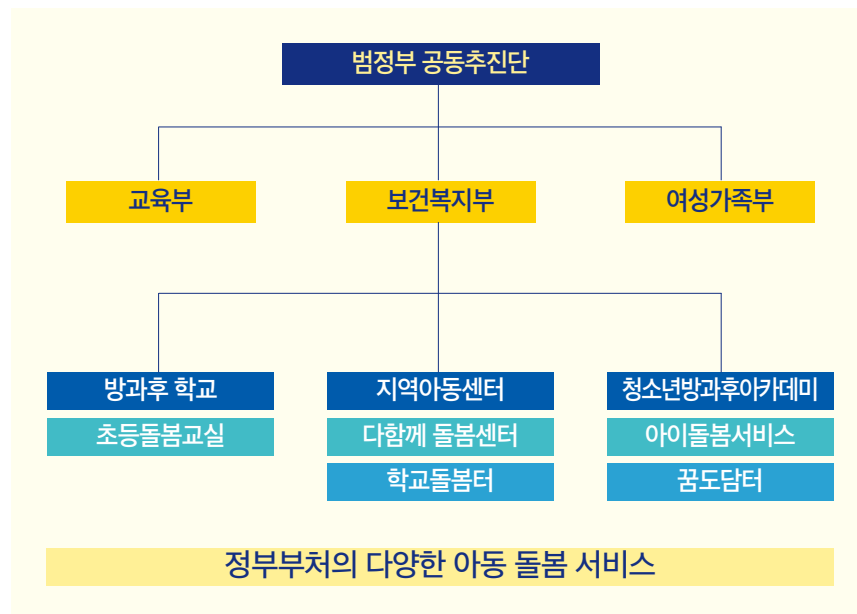


2.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

2

아동 돌봄 서비스 주체가 다양한 반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

- 아동 돌봄 서비스 3개 부처 8개 돌봄체계로 분산, 부처간 돌봄체계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가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2.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

3 아동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사업별 명칭, 대상연령, 운영 방식 모두가 상이함

- 아동 돌봄의 서비스 다양성 수요와 통합적 체계를 고려하여 담당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면서 복잡한 돌봄체계가 형성됨.
- 2007년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논의 시작했으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15년 이상 복잡한 체계가 개선 되지 않고 있음.

4 아동수요를 배제한 운영방식 문제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시설이라는 낙인 문제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미취학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등학령 아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 초등돌봄교실은 주양육자의 평균 퇴근시간이 7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돌봄을 5시로 설정하여 아동이 학원에 가야하거나 혼자 집에 있게 만들고 있음.

→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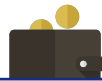
아동의 생활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전환 요구

2.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

5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 문제

- 아동권리보장원에 공시된 2021 다함께사업돌봄 안내에 의거, 센터장(8시간)의 4대보험을 제외하면, 센터장은 1,866,000원, 돌봄 선생님은 925,000원의 급여를 받음.
- 8, 9호봉으로 시작하는 신입교사 기준, 교사 월 평균 급여에 매달 수급 받는 필수 수당 (교직 수당, 정액 급식비)을 포함시킬 때, 평균 월급은 2,475,000원 여기에 호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낮은 편임.
- 아동 돌봄영역 종사자의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함.

센터장(8시간)근무



4대보험 제외한 금액

186 만 원

2021 다함께사업돌봄 안내에 의거

돌봄 선생님



92 만 원

2021 다함께사업돌봄 안내에 의거



**아동 돌봄 영역 종사자의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함.**

2.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

6 돌봄종사자의 성별 불균형 문제

- 돌봄은 성별화 되어있어 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됨.
- 돌봄이 감정 노동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 일로 간주됨.
- 돌봄 인력에 대한 저임금 제공하여 돌봄 노동의 불평등한 임금 격차 발생

3. 아동돌봄의 추진과제

- 비전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체계
- 목적
 - 돌봄영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 구축
 -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 비효율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해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새롭게 구축 필요함**

3. 아동돌봄의 추진과제

■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공공성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환경을
구축하도록 공공의 역할 강화

보편성

성별, 연령, 장애, 재학여부, 가구경제수준 등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접근성

시간, 장소,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통합성

아동 돌봄서비스 간 상호 보완성 극대화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돌봄기능강화

돌봄 본연의 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3. 아동돌봄의 추진과제

■ 추진 과제

1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 돌봄
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3

아동 돌봄서비스 재구조화

4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3. 아동 돌봄의 추진과제

1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정부는 초등돌봄 이용 아동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 계획
- 학교와 마을돌봄의 실질적 연계 및 역할 분담 필요
-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3시 이후로 통일
- 마을돌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를 늘려 나가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종교시설(교회 등) 간 협력체계 확보:**
종교시설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3. 아동 돌봄의 추진과제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돌봄조정회의(사회부총리 책임, 사무국 운영) 구성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운영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장관 참여

온종일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차원의 돌봄협의기구 작동

-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성
- 온종일돌봄협의회는 지자체 아동돌봄계획 수립, 아동 수요 연계, 협력 사업 실시, 홍보 등의 기능 수행

3. 아동 돌봄의 추진과제

3 아동 돌봄서비스 재구조화

초등 및 중·고등학령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모두 통합

- 초등 및 중·고등학령 아동돌봄 '방과후센터(가칭)' 명칭 통일해서 사용
- 초등학령기 아동 방과후센터는 6~12세, 중·고등학령기 청소년 방과후 센터는 13~18세로 단순화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

- 모든 시설에서 정기돌봄, 일시돌봄, 긴급돌봄 이용
- 방과후센터 간의 경계 없이 아동 수요에 따라 실시간 센터 연계

3. 아동 돌봄의 추진과제

3

아동 돌봄서비스 재구조화

아동 돌봄서비스기관은 돌봄 기능에 집중, 그 외 서비스는 책임있는 연계협력

- 방과후센터는 돌봄서비스에 집중하여 돌봄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나 기타 복지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연계

아동 욕구기반으로 서비스별 기능 차별화 필요

- 아침돌봄은 학교 방과후 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 저녁돌봄은 학교와 마을의 방과후센터가 담당하고 지역에 따라 권역별 서비스 배치
- 일시 및 긴급돌봄은 아동의 생활시간과 장소 선호도 고려하여 모든 방과후센터에서 실시

3. 아동 돌봄의 추진과제

4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

학교 및 마을 돌봄종사자 간 일자리 질 상향 평준화 중요

+

**전문성 강화 위해 돌봄종사자 양성과정 강화, 종교시설의
인력양성기관과의 협업 가능**

+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대타협 필요

+

국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4.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1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타협

2 통합적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3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4.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1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

- 현재 아동돌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심각
-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대타협이 필요함
- 리더십 및 예산 변화 등의 상황 변화 관계없이 안정적인 대전환 추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4.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2 통합적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장기적으로 정부부처의 조정 필요
그전까지는 지자체 단위에서 부처와 상관없이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청소년 정책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집행
-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가족부 청소년 육성기금 통합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자체적인 돌봄계획에 따라 통합 재정 활용

4.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3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아동은 부모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동시에
필요하고, 과잉교육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놀고 쉴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 홍보 강화

:: 프로필 :

University of Washington,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Portland Stat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前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現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02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5
-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53
- 다음세대를 세우는 돌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61
- 아동돌봄을 위한 돌봄과 교육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
- 성암교회 교육 공동체 협업 이야기 -
조주희 목사(사단법인 더불어배움 이사) 71
- 아동돌봄과 교회의 공공성 역할의 필요성
송민경 대표(아이돌봄엄마모임) 81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토론1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



토론 1

출산율 급증

1955년부터~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었다. 인구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곤 했었다. 아들 선호사상이 강한 사회적 특성상 아들을 낳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출산을 독려했다. 아이는 낳으면 스스로 자란다. 자기 먹거리는 타고 난다. 이런 속설들 가운데 출산율은 증가하기만 했다.

출산율 감소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1975년 87만 명에서 1985년 65만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점차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1.0 이하(2018년 0.98, 32만 7천 명)로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정책은 파편화되어 수립되었을 뿐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

1980년대 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돌봄시설이 없어서 아우성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편리한 외할머니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안되는 가정들이 무수하게 존재하여 사회문제화 되어 탄생한 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다.

학령기 아동방임

정익종교수님 발표에서 보듯이 어린이집이 보급되면서 겨우 학령전기 아동들을 위한 돌봄의 문제가 다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는 대안이 없었다.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와 학원이 아동들을 위한 인프라의 전부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갈 수 없는 아동들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방임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 돌봄 인프라구축

1997년 경제 위기로 인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때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던 공부방이 아동들을 돌보는 인프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였다. 다시 한번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인프라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아동 돌봄 정책의 실패

아동돌봄 시설의 변화로서 전쟁고아를 돌보는 아동복지시설로 등장한 양육시설은 점차 가정해체로 사회적 돌봄의 대상이 된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해외로 입양되던 아동들은 점차 국내입양으로 전환되면서 감소되거나 가정위탁으로 돌봄을 받게 되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무료급식논쟁, 아동수당논쟁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정책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아동 돌봄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시 개편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저항도 상당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인구정책에 기초한 아동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아동 돌봄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면 국가의 돌봄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한다. 누구나 아동을 임신하면 국가에 등록하고 정기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한 아동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임신부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출산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아동수당정책과 가족수당정책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기 돌봄서비스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이를 부모들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보육, 직장보육, 방문보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단위로 설치해야만 한다. 영유아기 아동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민간자원인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인프라를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안전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민간자원인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수당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하여 학업과 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은 직업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정확보 방안

첫째

아동돌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현행 아동 관련 부처의 예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 복지, 노동 다양한 관련 부처의 예산을 분석하여 아동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여 재정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여야 한다. 중앙부처나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편성한 예산과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유사 중복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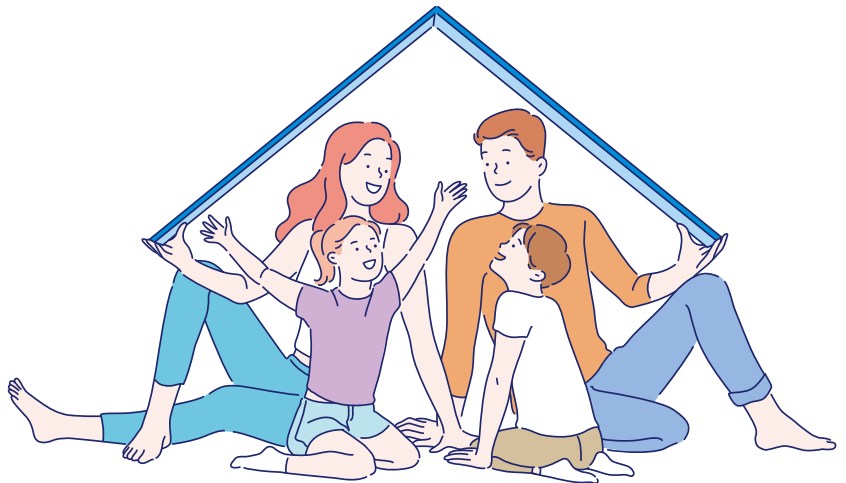
세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조세저항이 큰 민간 법인세 납부자, 고소득자들에게 세금납부를 통해서 국가와 미래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금을 내면 어리석다'는 통념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선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교계와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오는 글

기독교 TV의 다음세대운동본부가 주최한 금일의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가가 보다 책임성 있게 아동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프로필 :

송실대 사회사업학과(박사)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학과장)

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교류분석임상학회장,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장,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평가위원장

現 한국미래복지경영학회장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토론2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



본 토론문은 크게 아동 돌봄 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과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흐름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됨

토론2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아동 돌봄 정책

□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발제문의 아동돌봄서비스 체계(안)에 강력하게 동의하며, 이 아동 돌봄 정책이 가야할 방향 중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함.

□ 대전환이 시급함

○ 0-5세 아동돌봄과 달리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방과후 혼자 집에 있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해야 함.

○ 또한 현재의 분절적이고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서비스 체계로 인하여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변화가 필요함.

○ 그간의 땀질방식의 정책보완으로 서비스 체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동돌봄체계를 통합하는 대전환을 통해 확실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아동의 중심화가 필요함

- 아동 돌봄 정책의 당사자가 아동임에도 아동이 주변화되어 있음
- 현재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공급자인 부처 또는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동이익은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
- 게다가 당사자 의견도 아동이 아닌 보호자 의견이 주로 수렴되고 있어서 아동의 돌봄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온종일 돌봄수요 조사를 비롯한 많은 돌봄수요 조사의 대상이 보호자이며, 보호자들은 방과후학습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은 방과후에 학습보다 놀고 쉬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이렇게 보호자가 아동의 방과후 수요를 정확히 대변하기 못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의견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의 중심화에는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는 아동의견의 절대적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음. 아동, 보호자, 전문가 등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 아울러 정책 논의가 공급자인 부처 또는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아동 돌봄 정책의 대전환은 더욱 빠르게 실현될 것임

토론2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아동 돌봄 정책 대상은 취약계층 중심에서 맞벌이가구로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편화되고 있음. 사회적 돌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화해감에 따라 아동 돌봄 정책 대상을 보편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봄.
-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아동돌봄, 긴급돌봄, 일시돌봄, 아픈아이 돌봄 등이 가능해지면서 경직된 이용자격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됨. 또한, 소득에 따른 이용자격 제한으로 발생하는 낙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대상은 보편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단, 대상이 보편화될 때 오히려 소수아동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학교밖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흐름 속에서 교회의 역할

□ 초등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나,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부족,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하여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돌봄공간과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탐색해볼 수 있음.

□ 돌봄공간으로서 교회의 장점과 유의할 점

○ 전국에 50,00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교회는 접근성이 높고 임대료 부담이 적고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장점을 살려 정부 및 지자체의 방과후돌봄 노력이 미흡하던 과거에 교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

○ 한편, 교회가 돌봄공간 운영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 또한 크게 확대되었으나, 지역아동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의 어려움, 운영 투명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여러 지침들이 마련되었음. 향후 교회가 돌봄시설 운영을 확대해나갈 때 이러한 지침 준수에 유의해야 할 것임

토론2

□ 종교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유휴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규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 예외적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이 예외에 해당하는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므로 종교시설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을 위하여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문화집회시설군인 종교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규정 내 이용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지자체와 종교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참여(안)

○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참여가 어렵고, 학교 외 지역사회 돌봄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교회의 역할은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구분해볼 수 있음. 교회는 다음의 참여방식의 장단점과 조건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임.

○ 공식적 참여

- 아동돌봄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안이 있음.
- 이때 교회는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채용의 공정성, 회계투명성, 형평성 등과 같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한 공공성이 요구됨
- 교회는 민간소유의 교회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교활동과의 분리를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돌봄전용공간을 확보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함. 교회는 돌봄전용공간 제공과 더불어 교회 내 타공간도 일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돌봄공간 활용에 유리한 시설이므로 교회 내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토론2

○ 비공식적 참여

- 교회는 공식적 돌봄체계 내에 편입되지 않고, 교회 내 자체 사업으로 돌봄제공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는 교회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및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류정희 외.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1. 2021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 프로필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사회사업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前 서울복지재단 연구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ost-Doc
 Researc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총무이사

現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위원장, 송파구 온종일돌봄협의회 부위원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리동네키움센터 컨설턴트,
 거점형 키움센터 1호점 운영위원장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토론3

다음세대를 세우는 돌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 경 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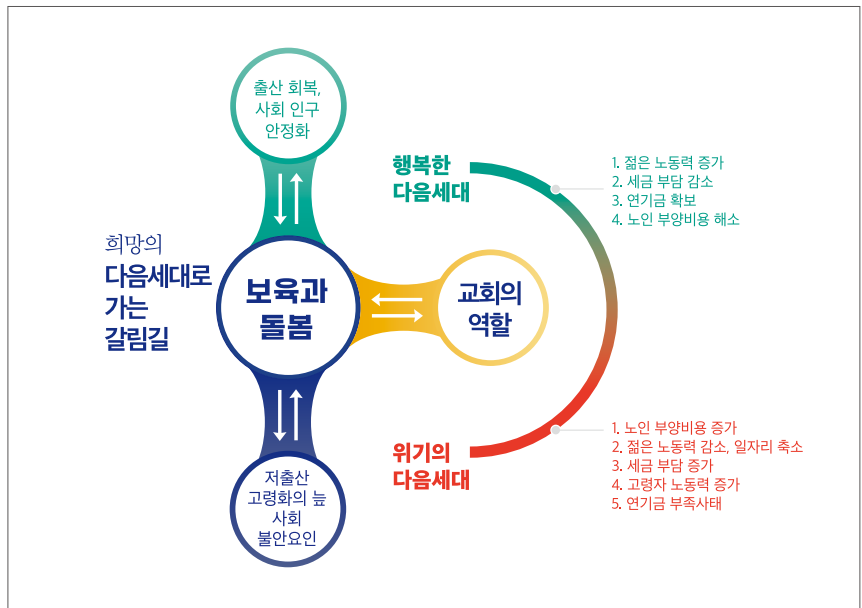
COAC

토론3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세워가려는 CTSD다음세대운동본부의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큰 맥락에서 본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 한 바 토론해야 할 핵심은 ‘아동 돌봄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에 대한 것으로 아동 돌봄 현장 실천가이자 크리스천 사역자의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 발제자의 주제발표 내용은 큰 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머물러 있고,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형적 구조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가치 인식에서 이렇이러한 대안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발제의 맥락에서 토론자로서 느껴지는 인식은 ‘총체적 난국’이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다. 발제에서 제시된 해결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과 공공성, 보편성과 접근성, 통합성과 서비스의 질이다. 이 포괄적 해결과제와 대조해 제 토론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으로 대입시켜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희망의 다음 세대로 가는 갈림길에 보육과 돌봄의 해결이 매우 중요한데 행복한 다음 세대로 가느냐? 위기의 세대로 가느냐? 에 한국교회의 역할을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1. 다음 세대, 그들의 이익(행복)을 최우선 하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에서는 아동의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의 깃발도 엄밀히 말하면 아동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 돌봄과 교육, 보육을 통해 한국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므로 의미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발제자의 제시에서 공급자 중심이라는 전제조건을 주목했으면 한다. 사실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하 역시,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누릴 현세와 내세의 영생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교회는 아동 최상의 행복을 높은 가치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그래서 최상의 복지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토론3

2. 공공성(公共性)의 오해와 공동성(公同性)의 이해 (접근성을 포함하여)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것들로 정의된다. 반대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화(私有化) 또는 공유화(公有化)하여 사회 구성원이 두루 관련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공공재화(公共財貨)를 사유화하는 것만큼이나 지방정부나 단체가 공유화(公有化)하는 것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공공성(公共性)은 만민이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성(公同性)을 내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해결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 역시 지역 사회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부족하다. 제가 속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교회 교육관을 지방정부에서 요청해서 평일에 돌봄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래라저래라하느냐?” 라는 말은 공공성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마치, 시청 회의실이 시청 내에 있으니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전유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공유화된 것으로 사유화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듯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말은 지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성(公同性)의 권익이 획득되어야 한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아름답고 수려한 산의 입구를 한 사찰이 마치 모든 산이 자기 산인 양 사유화하고 보존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공분하게 된다. 사유화 또는 공유화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전국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 공간을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로 사용하기로 공개하여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면 ‘내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하는 공동화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식도 높아졌다.

최근에도 교회의 리더가 바뀌거나 여건에 따라 공적 재원이 투입되었던 기관들이 임의대로 사라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공공성이 고도화될수록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요구한다. 히브리즘 성격을 띤 교회 정치 제도와 헬레니즘 성격을 띤 인본주의적 사회 제도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는 공공성의 개념과 자주 충돌한다. 그런 의미에서 뉴 노멀의 시대, 현대 교회가 취해야 할 접착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근본적 사실에서 접착점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 사물에서 접착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분석으로 공공성의 본질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¹⁾

1) 변증학, Cornelius Van Til.

토론3

3. 보편성과 예수 그리스도

돌봄의 보편성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는 발제문에서 사용된 ‘모든 아동’이라는 용어다. 보편과 선별의 갈등은 이분법적으로 단정 짓기보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더욱이 보편성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보수적 관점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장 취약 한 집단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보편적 관점은 모든 집단에 골고루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아동에 있어서는 성인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아은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 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이나 장애, 부모의 경제 수준이나 거주환경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래서 반사회적이다. 한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돌봄과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19:14)

모든 아이에게 사회적 지원의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일임을 강조하는바, 교회는 마땅히 다문화, 취약, 장애, 난민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사회적 배려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옹호해야 할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총체”를 교회라 칭한다. 즉,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나치게 유형의 교회에 집착하여 대형화나 맘모니즘(mammonism)에 빠지고 세력화하는 것은 교회 개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돌봄과 교육의 유희공간을 공유하는 것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양이 된다.

4. 통합성

온종일돌봄체계는 중앙 정부 세 개 부처에서,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전달체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제한하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동일 부처마다 정부 주도의 파생 체계를 확대함으로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을 빚어내거나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혼선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이해관계 충돌로 통과시키지 못한 채 폐기 직전이다. 이러한 혼선은 발제자 제안대로 “돌봄서비스 간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더 설득력을 얻게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예산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건복지부의 예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하여 통합된 재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이 쉽지 않다.

토론3

최근 확인한바, 보건복지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성의 여지를 비추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때 겪게 될 전체의 실패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처 간 성과주의,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개선하여 '아동 행복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5. 아동의 돌봄 기능 강화

아동 돌봄의 기능은 단순히 아동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치지 않는다. 돌봄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고착되어왔고 사회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 돌봄 정책은 여성의 사회화로 인한 고용 형태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교육과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도 하며 결혼과 출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는 판이해진 돌봄의 개념은 이미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금까지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의 문화적 요인은 대체로 함께 인식하지 못해왔다. 아니 어쩌면 인식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돌봄을 논의할 때는 단순히 돌봄 정책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사회문화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돌봄의 공식적, 비공식적(가족) 측면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돌봄과 재생산을 책임지는 젠더 평등의 문제나 저출산 해결을 가임여성의 숫자로 해석하여 해결하려는 단순한 기준이 대표적이다. 결국, 돌봄과 저출산에 있어서 정책과 시스템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을 반드시 연결 지어야 한다.²⁾

2) 돌봄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돌봄의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윤승희, 2012, p33.

돌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도 연일 저출산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상 보육이나 수당 제도 등의 시스템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첫째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돌봄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돌봄 전반에 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는 미래에 어떤 돌봄을 지향해야 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에는 근대화를 이끈 결정적 역할을 해 왔고 “교회는 사회봉사를 키운 어머니”라고 했던 라인홀드 니버의 말처럼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해 행복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변화에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 프로필 :

M. Div (목사)

前 KOICA해외봉사단 강사, 사회적협동조합숲과나무 이사장,

現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복지재단

이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평가TF위원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토론4

아동돌봄을 위한 돌봄과 교육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

성암교회 교육 공동체 협업 이야기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 이사

조 주 희 목사



토론4

1. 시작하며

성암교회는 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난 15년간 꾸준히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펼쳐 왔다. 교회가 지역과 만나는 사역의 장의 개발하고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사역들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과 꾸준히 연결 고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개발되고 진행되는 사역들은 지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욕구를 교육전문가들과 조직을 통하여 반응하는 길을 찾게 되었다. 교육단체를 지역교회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교회, 지역 사회, 교육 전문단체, 학교들과 협업하는 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돌봄을 위한 상설 시절 즉, 성암방과후교실과 다섯콩 작은어린이 도서관의 운영을 통하여 더욱 확대하게 되었고 지역과 접촉면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형청소년케어, 공감캠프, 그리고 토요일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매개로 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컨설팅을 시작하다.

성암교회의 아이들 돌봄의 시작은 컨설팅과 관련된다. 교회는 지역 사회와 만나기 위해 컨설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컨설팅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1 조사

첫째는 조사이다. 교회와 지역에 대하여 설문과 일반 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얻게 되었고 이 자료들은 교회 사역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성암교회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은 조사를 통한 욕구의 발견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2-2 교육

둘째는 교육이다.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교회 내 교육이고 나머지 하나는 방문 사례연구이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이며 동시에 낯선 일이다.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회는 지역에 익숙하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지역과 관련된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낯선 것들이다.

따라서 신학적이고도 목회적인 측면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해와 사역의 대상인 세상 혹은 지역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컨설팅 과정에서 교회는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교회 교육을 시행했다. 교회가 지역과 만날 수 있는 역량을 계우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범이 되는 교회들과 지역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강의를 듣고 사역을 돌아보며 질의응답 등을 함으로써 교회가 개발하는 사역들이 구체적인 길을 미리 맛보도록 하였다.

2-3 조직

셋째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이다. 조직은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교회조직, 둘째는 전문가 조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 조직이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이니 전문가 조직은 당연하고 교회의 의사와 결정 과정을 위해서 전문가 조직과 만나는 교회조직이 필요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에 있어서 세 번째 지역 조직이 중요하다. 지역의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하여 지역 조직을 구성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을 지역을 향한 사역이다. 교회 내부의 사역은 교회 내부의 조직만으로 충분하지만, 지역과 만나는 사역은 교회 내부 조직으로만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역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4

교회의 이야기와 지역이 이야기가 교류되는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교회와 전문가와 지역 조직이 사안에 따라서 서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사역 개발을 진행했다.

2-4 시범 사업

돌봄 프로그램을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전문성이다. 따라서 시범 사업을 정하여 전문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기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 실행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 성암교회의 돌봄 사역

3-1 상설 사역

3-1-1 성암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는 구청의 위탁 사업이다.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이유는 지역 조사를 통하여 성암교회의 지역이 특이성 중에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아이들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회를 얻었다.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의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사진1. 방과후학교 수업 광경>

성암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안전한 공간을 가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둘째는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다.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이다. 제도적 복지나 교육의 차가운 측면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

성암교회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품을 제공해 주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셋째는 교육과 돌봄의 질과 공공성이다. 이를 위해서 성암교회 단독으로 기관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구청과의 협력 사역을 선택함으로써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2개 반 40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참여하고 있으면 15년째 지속해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의 기반을 견고하게 새운 상태이다. 5명의 따뜻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함께하는 공간이다.

3-1-2 다섯콩작은어린이도서관

다섯콩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욕구에 대한 응답으로 설립되었다. 소관장서는 약15,000권에 이르며 어린이회원은 약 1,200명에 이른다.



<사진2. 다섯콩작은도서관>

토론

이 또한 지역의 필요에 세워졌기에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의 도서관 운영은 그동안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이 그동안의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삶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첫째는 양질의 도서 확보와 둘째는 어린이 돌봄과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시설이나 환경적인 면에서의 안전한 공간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문 사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2 간헐적 혹은 정기적 돌봄 사역

3-2-1 마을형청소년케어

이 돌봄 사역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와 관련된 비영리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네트워킹이 구청과 교육지원청에 제안하고 교육청과 구청은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구청은 운영비로 지워하고,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킹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교회는 장소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협업 형태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통신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인 아이들이 교회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우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목이라는 사인을 주는 것과 교회가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반응할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육청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며 다자간의 협력 구조를 통해서 이 돌봄 사역의 공적 지위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주중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들의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주말은 대부분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쉬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 돌봄이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되는데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맞벌이 부부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요청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비교과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이런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급의 가능성과 전문성이 있으면 교회와 동반 관계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며 사역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3-2-2 주중돌봄사역

기본적으로 마을형 청소년케어와 성격상 다르지 않다. 구별되는 점은 주중에 이루어지며 돌봄보다는 기능적이고도 교육적 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에게 교육과목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 어학, 문화 등이 주요 과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원의 방식과 구분된다. 아이들에게 놀이 방식과 참여 방식을 통하여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생각보다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8주 정도의 기간으로 한 해에 2~3회를 실시했다.

3-2-3 공감캠프

다자간 협력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역들과는 달리 이 사역은 전문기관의 교육 기능을 사용하기는 하나 교회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름 사역이다. 해마다 100여명이 참여하는 무박 캠프인데 교회와 ‘(사)더불어 배움’과 협의하여 강사진을 결정하며 교회의 어린이들과 지역의 어린이들을 50대 50 비율로 참여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한 반당 3명의 선생님을 배정한다.

토론4

이 선생님들 가운데는 반드시 교회학교 선생님을 참여시켜 지역의 아이들과 교회 아이들이 서로 그룹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며 지역의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는 어린이 관리이다. 어린이들의 도착 여부와 귀가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 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공지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 닉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진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보내 줌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확신을 주며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셋째는 준비와 평가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용됨에 따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프로그램 리허설을 실행함으로 교회가 가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임으로 교회가 지역 아이들의 교육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 또한 다면적 평가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어린이, 그리고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들에게 평가지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운영을 통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촉면이 확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이 과정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교육적 능력도 향상하게 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의 학습 운영 방식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지역 사회 교육의 표준지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험하게 됨에 따라 선생님들의 교회학교에서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

4. 맺으면서

교회공동체는 지역 사회에서 함께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이다. 나아가 세 가지 정도의 돌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첫째는 교육의 기능이다. 교회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교육 기능을 지속해서 오랫동안 실행해 왔다. 학교나 교습 기능을 가진 전문적 교육기관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 둘째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약한 대상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돌봄에 대한 익숙한 공동체이다. 셋째는 교회공동체는 공간과 인력 자원을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공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고유한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 중의 하나이며 지역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 프로필 :

성암교회 위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사)더불어배움 이사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토론5

아동 돌봄과 교회의 공공성 역할의 필요성



아이돌봄엄마모임
송민경 대표

토론5

1. 초등 돌봄의 현실 상황

- 1) 필요성①: 맞벌이 가구 증가
- 2) 필요성②: 가족 규모 축소
- 3) 필요성③: 코로나19로 인한 주변 환경의 큰 변화
- 4) 학부모들의 선택: 학원 돌리기, 직장-직업 포기

2. 교회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장점

- 1) 신뢰성 - 교회에는 따뜻함이 있다.
- 2) 접근성 - 지역 사회 내 가까이 존재한다. (교육 공간 제공, 안전 문제 해소)
- 3) 전문성 -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기관과 연계)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지난 시간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도 늘 어렵다고 고민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 부모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재정 마련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필품의 물가 상승, 교육비 부담 등 증가한 전체 생활 소비 비용을 감당하려면 웬만한 외벌이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 마련과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저축 등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 가정들의 형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들의 자율적인 사회 참여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의 엄마들을 보더라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와 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에 힘쓰는 부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40~50세 사이는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만큼 재정 수입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수록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변 가정을 보더라도 가족의 규모가 작습니다. 형제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보기 어렵고, 또한 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규모가 점점 축소된다는 말은, 돌봄이 필요할 경우 맡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족 규모에서는 돌봄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부담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체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매우 낯설고 특이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현장도 온라인 학습이 당연하고 익숙한 교육환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직접 선생님과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은 제한되었습니다.

토론5

모든 교육은 인터넷과 정보 서비스망을 통해 필터링 되어 가감되거나 조각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을 놀이터는 방역 이유로 폐쇄되었고, 인원 제한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가 친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보통 부모들은 2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원 돌리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부모들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여러 학원으로 보냅니다. 음악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 등 정말 많은 곳을 다닙니다. 물론 아이들의 자아 개발을 위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돌봄의 형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도 이를 인정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결국 부모 중 한 명이 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사회적 능력은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오롯이 돌봄은 엄마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제 주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려움을 교회가 주관하는 아이 돌봄에 참여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아이 돌봄에서 경험했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가지는 고민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입니다. 무턱대고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 아이 돌봄을 처음 보았을 때도 이런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봉사자들의 표정과 말투, 행동과 생각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은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보여준 신뢰의 기본 환경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아이 돌봄을 맡기게 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언론 매체에서 전하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는 늘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가까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위기-돌발 상황 속에서 손쉽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교회 내 방과후교실은, 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걸어서 2분이면 학교에서 교회로 도착합니다. 집-학교-교회가 안전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토론5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돌봄을 단순히 보육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유익한 교육과 성취 과정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교회에서 제공한 교육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였을 때, 교회는 전문가 그룹과 협약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주중에 영어와 한국사, 코딩 같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주말에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와 만들기, 연극 등 참여적인 콘텐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중 저녁 시간은 일에 지친 부모가 재충전할 수 시간이 마련되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지역 아이들에게 공간 제공을 넘어서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을 때, 부모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 돌봄이 참 어렵다’ 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돌봄 서비스는 교육적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만족했던 이런 교회 돌봄 서비스가 더욱 보완되고 확장된다면,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필 :

아이돌봄엄마모임 대표, 꽃동산어린이집 교사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발행일	2022년 1월 20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T. 02)6333-1110 www.cts.tv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 02)2278-9260

※ 이 책의 저작권은 CTS다음세대운동본부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